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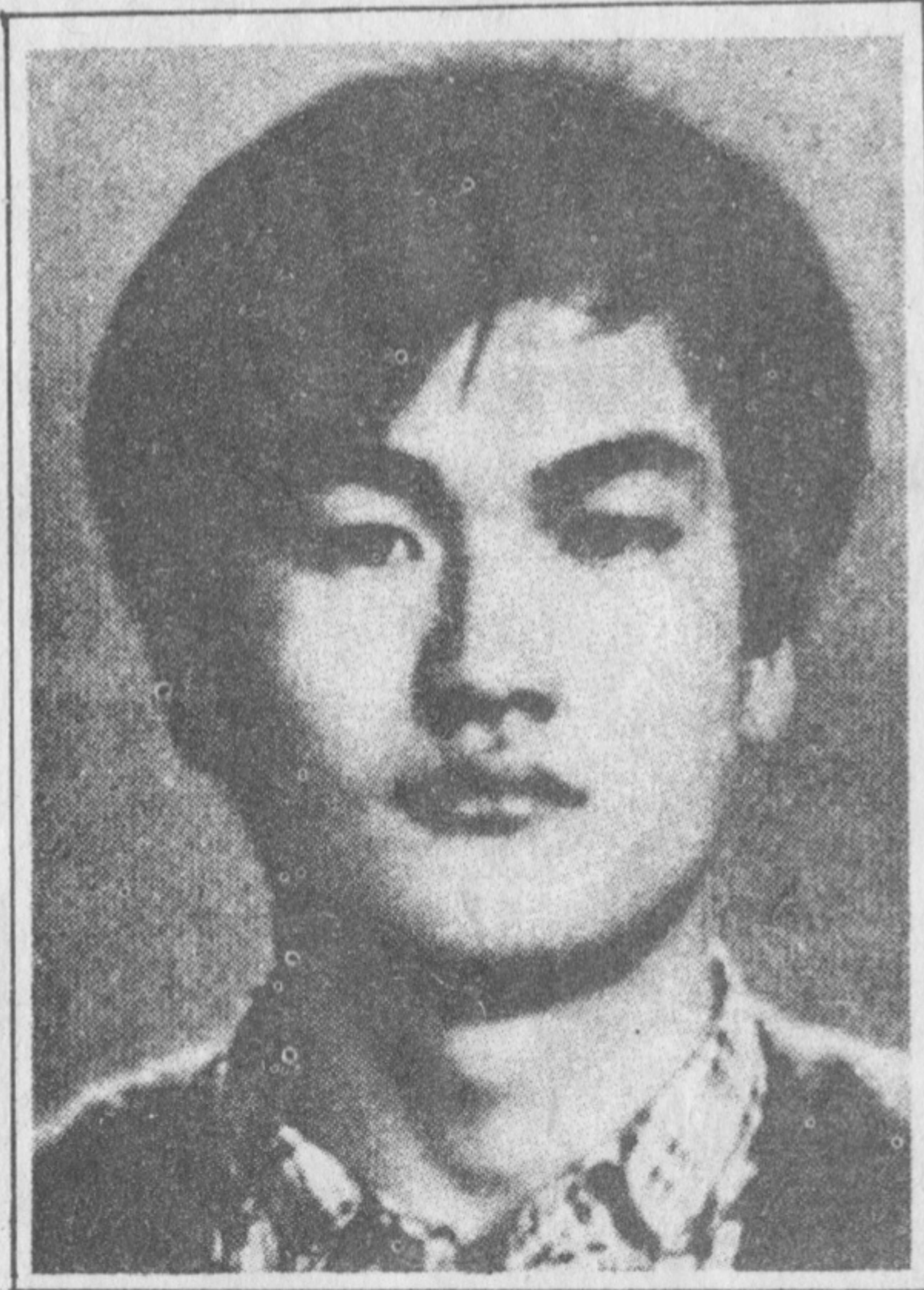


호외

민중신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서울시 중구 쌍림동 34-5
양지빌딩 602호 ☎ 269)2653
1987년 7월 7일

한열아! 보아라 우리는 승리한다!!



광주의 아들, 4천만 민중의 녀,
반독재 민주, 반외세 자주화투쟁
의 화신 고이한열 열사는 결코 화해
할 수 없는 미국, 전두환·노태우 일
당과의 투쟁대열의 선봉장으로서 장
렬하게 싸우다가 갔다. 그러나 1960
년 3.15일 마산에서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다 산화해간 김주열열사의 죽
음이 4월 19일 활화산으로 폭발했듯
이, 지난 1월 고박종철열사의 한
점 불꽃이 2.7, 3.3, 6.10, 마침내
6.26의 들불로 번져 미국과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벼랑으로 몰아 갔듯
이 이한열열사의 장렬한 전사는 살아
남아 싸우는 모든 이의 고동치는 맥
박되어 군부독재를 이땅에서 영원히
끝장내고 해방된 조국을 맞이하는 날
찬연히 부활하리라.

누가 한열이를 죽였나

박종철열사 고문살인과 은폐조작,
4.13 호헌책동으로 전두환일당의 장
기집권 음모가 노골화되자 애국청년
학생과 4천만 민중은 군사독재타도
투쟁에 하나되어 떨쳐 일어났다. 6
월 10일 불붙기 시작한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중투쟁의 거대한 불길
은 명동투쟁을 시발로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방방곡곡을 휩쓸고 6
월 26일 “독재타도”, “미국반대”
로 바뀌면서 미국과 전두환 일당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자 미국과
군부독재는 직선제 수용을 골자로 한
소위 6.29 노태우선언을 발표하고
대타협이니·화해니 하면서 기만적 선
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6.10~6.
26 사이에 무려 35만1천2백발이

나 되는 최루탄을 무차별하게 퍼부
어 온국민을 적으로 삼아 전투를 벌
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한열열
사는를 비롯한 애국청년학생·시민등
수백명이 살인최루탄에 맞아 숨지거
나 부상을 당했다. 민중의 피땀을 짜
낸 세금으로 더러운 살인정권 유지를
위해 대국민 전투를 벌인 전두환·노
태우일당, 그리고 80년 광주학살에
서부터 계속해서 이를 뒤에서 배후조
종해온 미국이 바로 이한열열사를 죽
인 살인범인 것이다.

살인범들을 이한열열사를 두번·세
번 죽였다. 군사독재의 직접적 하수
인 서대문경찰서장 김수길은 이열사
임종직후인 5일 새벽 3시 5천만명
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치밀한 「시신
탈취작전」을 시도했으나 가족과 동
료학우, 교수의 죽음을 각오한 결사
저지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이 열사의 어머니는 “노태
우·전두환 이 죽일놈 어디갔나! 경
찰놈들아 한열이 에미 여기있다. 나
까지 잡아가라”며 절규하다 실신했
으며, 이 열사의 지도교수 이완수교수
는 “한열이의 시체는 내가 죽을 각
오를 하고 지키겠다”며 완강하게 경
찰을 저지했다. 또한 직격최루탄이
직접사인임을 천하가 다 아는 데도
군이 부검을 실시하여 사인을 호도하
려한 검찰은, “한열이를 두번 죽일
수 없다”며 부검을 반대한 가족, 교
수, 동료학우들에게 압수사유: “피
의자 이한열은 극력시위를 하던중...”,
압수물건: “이한열의 사체일부” 라
고 꾸민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이
열사를 욕되게 하는 더러운 만행을
저질렀다.

**한열아! 보아라. 우리는 싸운
다. 우리는 승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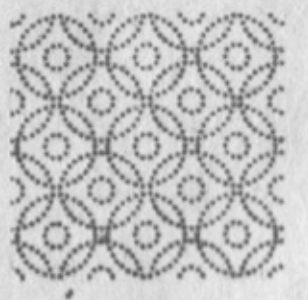
5일 “이한열군의 사망에 대한 범
국민대책회의”, 6일 “이한열군 사
망에 대한 범연세대 비상집회”, 5일
새벽 이열사의 임종직후부터 애도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조
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염원하다 전
선에서 숨진 이열사의 영전에서 살아
남은 이들은 다짐하고 있다. “우리
가 있어야 할 곳은 전선과 감옥과 무
덤 뿐이다.” 이열사가 싸우다 쓰러
진 그 전선에서 이열사의 뜻을 이어
받아 군부독재의 완전한 종식과 조국
의 자주통일의 달성을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싸우는 것이다. 그리하
여 “...최루탄가스로 얼룩진 저 하늘
위로 날아간” 한열이를 영원히 살
게해야 한다.

추도시 그대가는가 새날이 오는데... 고 이한열민주열사의 영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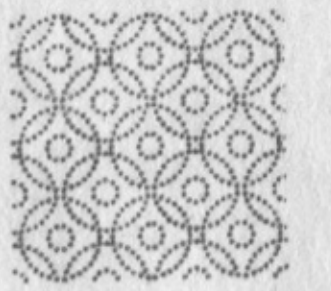
이 오욕의 땅 끝으로 가면 너를 만나볼 수 있을까
이 분노의 함성따라 가면 너를 안아볼 수 있을까
그 혼한 유언 한 마디 남기지 못한 채 떠나버린 너를
이젠 영영 다시 볼 수 없단 말인가
영영 네 이름을 다시 불러볼 수 없단 말인가
열아,
한열아/
누가 가라더나
누가 너보고 먼저 가라더나
네 친구들이 두 눈 뜨고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너보고 아버지보다 먼저 상여를 타라더나
누가 너보고 어머니보다 먼저 무덤으로 가라더나
네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 4천만 민중은 그토록 살아오길
두 손 번쩍 들고 환한 웃음으로 살아오길 그토록 빌
었건만
한열아, 너는 끝내, 피바람 속, 끝끝내 가고야 말았구나
네가 없는 지금, 우리는
네가 남기고 간 시(詩)를 읽지만 다시 한번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그대 가는가
 어딜 가는가
 그대 등 뒤에 내리깔린 쇠사슬을 손에 들고
 어딜 가는가
 그대 끌려간 그 자리 위에
 4천만 민중의 웃음을 드리우자
 그대 왜 가는가
1960년의 마산 앞바다,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떠오른
김주열 열사가간지 27년
그 최루탄이 끝수에 박힌 채 뒷통수, 뒷통수 외치며
우리의 한열이는 망월동 묘지로 가는구나
아, 그러나 네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억압 착취 모순의 땅 속에서 용암처럼 부글부글 들끓다
마침내 땅가죽을 찢고 치솟아오른
저 핏발선 4천만 민중들의 치든 분노를 보라!
대머리가 가발을 쓴다고해서 살인마의 낮찍이 변한
다더나
대머리의 가발을 물려받은 노태우가 직선제한다고 해서
죽은 한열이가 살아온다더나
죽은 종철이가 살아온다더나

2천 광주의 원혼들이 살아온다더나
전두환도 노태우도 그놈이 그놈이다
화대받아 대화하는 놈도 협잡하여 타협하는 놈도 그
놈이 그놈이다
군사독재 타도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고 외치던 한
국을 '킹콩'이라 하고
노태우를 '국민적 영웅'이라 칭송하는
양코베기들 몰아내 민족해방 쟁취하자고 외치던
아-이 허리잡린 반도의 구석구석을 강타한 압제와
독재의 심장부를 강타한
저 태풍같은 투쟁을 우리 어찌 잊을 것인가
그 태풍 속을 우리의 한열이는 활화산같은 그리움으로
달려오는구나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종철이가 우리의 한열이가
칠성관 위에서 전기고문으로 죽어가고
최루탄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들은 무얼 했던가
동지들, 공동의 적 앞에서 종파주의를 척결하자며
목에 핏대를 세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은 강철같은 분파요
잃은 것은 강철같은 의지가 아니었던가
동지들, 그토록 헌신적으로 투쟁, 투쟁하자면서
그 투쟁을 최루탄 한 방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렸
지 않았던가
동지들, 적들이 조준하는 총구 앞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토록, 갈갈이, 찢어져
진정 싸워야만 하는가, 동지여
금방이라도 총구멍을 박차고 나와
우리의 심장에 박힐 저 핏발선 탄환이 보이지 않는가
동지여 싸움은 이제 그만
광주 영령들을 더 이상 분노케 하지 말자
종철이 한열이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말자
어머니보다 아들이 먼저 묻혀야 하는 척박한 식민지
아버지가 아들의 상여를 메고 가야 하는 착취의 땅
가자, 가다가 쓰러지면
넋이라도 벌떡 일어나 가자
고문이 없는 세상, 최루탄이 없는 세상
자주와 민주와 통일의 그날까지!!!

분단조국 42년 7월 5일



거짓민주화에 속지말고 군사독재 끝장내자!



이른바 '노태우선언' 의기만성

지난 6월 29일 이른바 '노태우선언'이 나온 이후의 들뜬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보다 냉정하게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할때인 것이다. 직선제개헌을 비롯한 소위 '8개항'으로 이땅의 민주화는 성취된 것인가? 이제 전두환·노태우일당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을 "화해로서 용서"하고 정말 마음 터놓고 "대화과 타협"을 할 때인가? 형님나라 미국의 릴리 대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노태우는 진짜 "국민적 영웅"인가?

천만에! 결단코 천만의 말씀이다. 6·29선언은 노태우의 "고뇌에 찬 결단"과 전두환의 "영단"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 6월 10일 이후 우리 민중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 전·노일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투쟁의 불꽃이 배후에 숨어있는 자기들에게까지 튀까 봐 두려워한 미국의 호들갑스런 정치공작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는 분명 우리의 승리이고 미국과 군사독재 일당의 후퇴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군바리들의 특기인 "작전상 후퇴"이지 결코 진짜 후퇴가 아님을 명심하자.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개중에는 "뭘 그렇게 서두르느냐? 6월 29일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확실하다.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

해 점진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나아지고 있단 말인가? 노태우가 해별쪽이 웃으면서 김영삼총재와 악수하고 있는 사이 검찰총장이란 자는 "집단행동 중단"의 협박성명을 발표하고 있었으며, 대학생들을 새로이 구속했다. 또 노태우가 이한열군 빈소에 화환을 보내는 한편에서는, 조문객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하여 다시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던 것이다. 거짓민주화의 음흉한 미소로 우리의 투쟁을 잠재우고 보수대타협을 꾀하여 시간을 벌면서, 뒤로는 기습전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세에 해박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군사독재의 손발을 묶어놓고 민간정부수립을 밀어주고 있으니 잘 될 것"이라고 떠벌인다. 이것 역시 중대한 착각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이익을 보장해주는 하수인은 역시 군사독재정권이다. 민중의 저항이 크게 치솟아 어쩔 수 없을 때만 슬쩍 다른 눈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이다. "시거는 노벨상을 받을만 하다"는 술츠의 가소로운 언사를 보라! 박정희처럼 죽여없애거나 마르코스처럼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도 사태를 수습해서 여전히 군사독재가 권력을 장악하여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고 있으니 어찌 자랑스럽지 않으랴? 미국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가 아니라 군사독재를 통한 안정적 지배의 유지인 것이다.

또 보다 유식한 사람들 중에는 "전·노일파가 다시 딴 생각을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류가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집에 앉아 텔레비 뉴스를 보며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민주화 뒤에 숨은 음흉한 속셈을 파헤쳐 만천하에 폭로하고 필경은 이자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팔짱끼고 "감시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한시도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자.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가?

첫째로, 거짓민주화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다. 예컨대 구속자 석방·수배해제·사면·복권 문제를 보자. 왜 이 핑계 저 핑계로 즉각 풀어주지 않는가? 살인적 고문으로 좌경·용공조작을 자행해놓고 이제 와서 '못풀어 주겠다니? 우리의 권양은 아직도 지하징벌방에 갇혀 있으며, 본연합의 김근태 전의장은 고문의 증거가 나타날까봐 외래진료조차 안 시키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개헌협상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기막힌 노릇이다.) 따라서 구속자의 전면석방을 위한 투쟁은 거짓민주화의 실체를 폭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학문·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할 투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전두환·노태우일파가 저질렀던 죄악들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광주학살을 비롯한 무수한 고문

·살인·폭력·강간사건과 장영자·명성사건 등 부정부패의 죄악상을 속속들이 파헤쳐 군사독재의 무리들을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화해와 용서"라는 어이없는 기만책을 깨부수자!

셋째, 광주학살의 배후조종등 미국의 간악한 술책을 고발하는 한편,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을 차단시켜야 한다.

네째, 노동자·농민·도시서민 등 대다수 가난한 민중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한다. 노태우의 '8개항'에 이 문제가 빠진 것만 봐도 그 거짓민주화의 기만성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투쟁 속에서 우리 모두가 군사독재의 완전한 종식이 없이는 어떠한 민주화조치도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 우리의 한열이를 죽게 한 살인마들이 어찌 민주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또 이 투쟁들은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큰 힘을 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국민운동본부·민통련 등의 투쟁대열에 직접 참가할 때만 군사독재를 완전히 끝장낼 거대한 파도를 만들 수 있다. 7월 9일은 고 이한열군의 장례식날이다. 다시 한번 전두환·노태우일당의 폭력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이자들을 끝장낼 분노의 파도를 이루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는 것을! 지난 5일 새벽, 민주를 사랑하는 한열이가 숨을 거둔 뒤, 한열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절규하셨다. "노태우 죽일 놈아! 전두환 죽일놈아! 너희들이 내아들을 죽였다. 이 원수들,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이 놈들아!" 한열이 어머니께서 노태우·전두환 일당과 화해하기 위해 이놈들을 찾으셨겠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처단을 위해서였다. 유언도 못남기고 27일 간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겨간 한열이, 인간 백정들의 고문에 비명도 못지른 채 숨겨간 종철이,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에 누워있는 광주민중항쟁의 희생자들, 그들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다. 돌려주어야 한다. 이 모든 슬픔과, 한과, 분노와, 모순을! 미국에게! 전두환·노태우 일당에게!
학살범과 화해없다. 군부독재 끝장내자!
 민주를 사랑하는 한열이를 살려내라!
 노태우에 속지말고 참민주를 쟁취하자!

참된 민주화는 학살정권 처단으로!

탑쌓기 눈치작전

기만적인 6·29선언에 이은 또하나의 사기극이 진행되고 있다. 노태우가 '광주의 매듭을 풀자'며 광주영령들의 위령탑건립을 들고나온 것이다. 때마침 유신잔당으로서 온갖 반민주적 작태를 연출하던 서울대총장 박봉식이란 자는 박종철군 기념탑건립문제를 들고나왔다. 군사독재의 두목은 두목대로, 줄개는 줄개대로 때 아닌 탑쌓기 눈치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노태우 일당은 요즈음 말끝마다 국민화합과 화해를 들고 나온다. 위로금 몇푼 집어주고 탑 하나 세워 줄 터이니, 더 이상 떠들지말고 그저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소리다. 도대체 누가 누구와 화해한단 말인가? 슬취한 공수부대의 곤봉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쓰러진 할머니! 대검에 난자당해 뱃속의 태아와 함께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젊은 아낙! '엄마

조국이 우리를 부릅니다'라고 외치며 달려나갔다가 계엄군의 조준사격에 스러져간 어린 고등학생! 조국의 민주화를 외치다가 '광주놈들 10만쯤 죽여도 좋다'는 전두환·노태우 일당의 총칼에 학살당한 2,000여 광주시민! 화해의 손길은 오직 이분들만이 내릴 수 있다. 살아남은 우리에게 화해의 권한이 없다. 하물며 학살의 주범 노태우 따위가 화해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화해나 기만이나?

노태우가 꾀하고 있는 것은 화해가 아닌 기만과 은폐이다. 자신과 전두환, 그리고 그 상전인 미국이 범한 죄악의 실상이 날날이 까발려져 민중들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막아보려는 수작일 뿐이다. 이를 꿰뚫어 본 광주시민들과, 그동안 군사독재의 탄압속에 위령탑건립을 추진해온 광주민중항쟁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진상규명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그들의 죄상을 규명하여 그들을 단죄하는 것, 이것만이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이다. 민중은 학살의 원흉 전·노일당과 그 배후조종자 미국과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다. 1945년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처단하지 못했던 것, 10·26 직후 유신잔당을 소탕하지 못한 것이 어떠한 비극을 불러왔는가를 명심해야 한다.

학살정권 끝장내자!

80년의 광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권력에 환장한 전두환·노태우 일당이 어떤 짓을 할 수 있는가를! 입만 뺏갓하면 민주주의를 나불대는 미국놈들로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국국민 몇천명의 목숨은 파리목숨에 불과하다

이한열열사 민주국민장
 1987년 7월 9일 오전 9시 연세대학교